

# 李-曁 정면 충돌 조짐

## 李 “대선자금 의혹부터 밝혀야” 曁 “막가는 행태 평상심 찾아라”

### 曁 다음주 입장 밝힐 듯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측이 대응을 시작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전 총재측이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다음주 중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 후보측이 이 전 총재의 '아킬레스건'인 2002년 대선자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양측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2위권으로 급부상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양측간 갈등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을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진영이 이처럼 적진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읍서남번처스 주구조 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귀국과 함께 대선 국면의 불투명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창호 사무총장은 1일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 자료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총재가 대선에 출마

하기 위해서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을 어떻게 모았고 처리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의 발언은 이 전 총재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선자금 건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 전 총재는 2003년 10월과 12월 불법 대선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감옥에 가더라도 제가 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면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지은 죄와 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 동지에게 지은 죄를 언제 사면받았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장은 특히 이 전 총재를 둘러싼 대선 자금의 내용이 수첩을 최명렬 전 대표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이 전 총재의 핵심측근인 이홍주 특보는 이날 “다음 주에 (이 전 총재가) 모든 것을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정치 일정을 봐서 무한정 장기간 할 수는 없는 만큼 내주 중에는 결단을 정리할 수 있도록 끊임 간 건드리려고 생각한다”면서 “발표는 대국민성명 형식이 될 수 있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이회창 전 총재가 서빙고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차떼기당 원죄론’ 비판에 대해 “이 전 총재가 최종 결단을 해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해 활동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 한나라 전남 민심공략 본격화

## 도당, 18일까지 시군별 선대위 발대식

## 내일 영산강 대운하탐사 자전거 투어

한나라당 전남도당이 17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각 시·군별 선거대책 위원회 발대식을 잇따라 갖는 등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돌입했다.

중앙당 이재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오는 3일 영산강 뱃길 주변을 자전거로 달려 영산강 대운하탐사 시에 나선다.

1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담양·곡성·장성 선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전남지역 22개 시·군별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한다.

고흥 선대위와 보성 선대위는 지난

달 31일 당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고흥·보성과 자매결연한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연사로 나서 당원들에게 이명박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고, 전석홍 전남도당 선대위원장은 ‘왜 이명박인가’를 주제로 특별당원교육을 실시했다.

1일에는 여수 선대위 발대식이 열렸고 7일에는 순천에서 진행된다. 박재순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각 지역별로 특표전략을 세워 ‘경

제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후보를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오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비례), ‘영산강 뱃길 살리기’ 회원 등 100여명은 3일 영산강을 자전거로 탐사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목포 영산강 하구언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안~나주~광주 서창으로 이어지는 옛 영산강 뱃길 81km를 돌아보며 현황을 파악하고 영산강 대운하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앞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지난 4월 모터보트로 영산강 하구둑~나주 동강나루터 구간을 탐사한 뒤 “국가예산으로 2년 내에 영산강 수질을 깨끗이 하고 광주까지 뱃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오 최고위원 발언은 오만의 극치” 분노한 차... 李 화해의 손 거부

## “李측서 만나자고 한 적도 없어”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에게 “오만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김무성 의원의 최고위원직 수락으로 ‘불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한나라당의 내분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오 최고위원의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너무 오만의 극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골똥히 생각한 뒤 나온 답변이었다.

박 전 대표는 김무성 의원의 최고위원직 지명과 관련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 가 돼 있었는데, 너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이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에서) 만나자고 한 적 없

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 이명박 후보와 당 지도부는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움직임이 나오면서 박 전 대표에 더욱 공을 들였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이 후보 측의 움직임을 이미 간파한 듯 이 후보 측이 내미는 화해의 손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재섭 대표는 이날 자신과 이재오 최고위원 간에 빚어진 공식 회의석상의 ‘충돌’ 사태와 관련, “다 잘해보자는 취지에서의 견해의 차이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또 박 전 대표 측의 이규택 의원이 언론인터뷰에서 이재오 최고위원에 대해 “빨간 완장이 떠오른다” 등의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언행을 서로 조심해야 한다”면서 “동료를 보고 완장이 어둡고, 이상한 용어를 써서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게 아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曁 지지율 급상승... 鄭 후보측 비상

## 언론사 발표 결과 2위권 반사이익 기대 못미처

다음주께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후보에 이어 2위를 달랠라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진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총재는 15.8% 지지율로 이명박(45.3%), 정동영(17.5%)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16.6%로 정 후

보(14.2%)를 앞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40.3%) - 이회창(22.4%) - 정동영(13.1%)’, SBS 조사에서는 ‘이명박(38.7%) - 이회창(19.1%) - 정동영(17.1%)’ 순으로 나왔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이날 조사 결과는 이명박 44.8%-정동영 16.8%-이회창 15.7% 순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가장 당황한 측은 정동영 후보측이다. 이 전 총재의 출마설로 가장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쪽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진

영이지만 정 후보 역시 이 전 총재에게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거나 이에 추월당한 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총재의 출마설이 처음 나왔을 때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반색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이회창 전 총재에 밀려 지지율이 3위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회의를 통해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鄭 후보 당선되길 바라” 문재인 실장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솔직한 마음을 밝히려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정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뉘, 솔직히 답변해도 된다면 그렇다”고 말한 것.

그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외에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같은 취지나 사실에는 “그렇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속마음을 묻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 산행인내

산행인내... (산행 관련 정보와 행사 안내)

11월 12일... (일정)

문의: 052-531-3636, 531-0700, 523-4800, 011-9612-5530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8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강 11월 12일... (일정)

문의: 361-8111, 529-8111

###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문의: 052-531-3636, 531-0700, 523-4800, 011-9612-5530